

▶ **주생활****노인요양시설의 가정적(homelike)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류 현 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전공 박사과정)

양 세 화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노인시설 계획에 있어 가정적 특성의 반영은 거주 노인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노인시설의 가정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제공의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 시설의 집과 같은 가정적(homelike) 특성을 제공하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위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 중 전문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시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노인요양시설은 울산시 소재 총 7개의 시설 중 N요양원, S요양원, Y요양원 3개 시설이며, 규모를 감안하여 입소정원이 90인 이상인 요양원 2곳과 치매전문 요양시설 1곳, 그리고 조사를 거부한 1곳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관찰과 심층면접, 사진촬영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현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지적 장애가 없는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 8명, 남성 1명이 면접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3개 시설 관리자와의 면접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노인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의미, 현 노인요양시설의 가정적인 특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시설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들 대부분은 현 시설에 대해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관리환경을 통한 가정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는 시설 밖의 사람들과의 단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물론 집처럼 인식되기 위한 중요 조건의 하나인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시설주거인 노인요양시설과 과거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집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요양시설에서는 그대로 영위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노인시설들이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노인들은 집과 같은 가정적인 느낌을 시설에서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관리자들은 시설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공간계획 및 시설확보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환경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 간의 관계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관리환경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관리자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거주환경 자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가정적 환경의 제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규모 그룹 홈을 통한 체계적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둘째,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 등에 따른 가정적 느낌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